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2호 [루게 제24330호] 주제102(2013)년 10월 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해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장정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신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 1단계 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지난 5월 20일 몸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염소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품먹는 집짐승들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종합적인 육종기지답게 잘 꾸리도록 1단계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목표를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1,500여정보의 광활한 부지에 수백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육종연구소, 관리청사, 살림집 등 수많은 건물들과 종합 밋야의 우리들을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위훈을 창조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1단계 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우량품종의 집짐승사육이 시작됨으로써 한적하던 산골마을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육종장 배치도와 전망계획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육종연구소, 관리청사, 문화회관, 종축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기슭마다에 특색있게 건설된 축사들과 새로 조성한 풀판들, 아담한 살림집들이 한쪽의 그림마냥 안겨오는 육종장의 변모된 광경을 바라보시며 군인건설자들이 많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육종장 1단계 건설을 당장건 기법일까지 끝낼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관철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육종장의 종업원들은 군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시고 머나먼 곳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육종장에서 키우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은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의 유훈관철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길러내자면 사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육종장에서 자연풀만 아니라 인공풀판도 품을 들여 조성하며 나무도 많이 심으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육종장은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당의 방침관철에서 전초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것만큼 지금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육종장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주도세밀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이 지구를 현대적인 육종장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 2단계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김익철 동무가 사업하는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익철 동무가 사업하는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공장장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직 교시판과 백두산철제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1947년 3월 30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공장을 찾으시어 기업편리를 짜고들어 질 좋은 일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하시면서 기업소가 걸어온 행로를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직장들과 문화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래와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공장내외부형편과 일용품들의 가치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고 오늘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것은 기업소를 21세기 일용품공장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첨단기계제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생활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는 일용품생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일용품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며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자면 공장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현대화하는데서 목표를 높이 세워야 한다고, 모든 생산건물은 물론 문화후생시설까지도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히 깨끗이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건설에서 설계와 시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가 일용품공장으로서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유능한 설계가들도 보내주고 전투력있는 군인건설자들도 파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화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친히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뜻깊은 날에 원수님께서 몸소 공장을 찾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해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꾼들에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의 넋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을 잘해나가는 의미를 담아 기업소의 이름을 <10월8일공장>으로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10월8일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의 강화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공장현대화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각각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8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한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 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들을 8일 외교단 단장인 존 하이 캄보자왕국 특명전권대사와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한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하한 페자 후세이니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모가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가 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되였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말레이시아에서 명예경제학 박사칭호를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말레이시아 헬프종합대학에서 명예경제학박사칭호를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여해드리는 명예경제학박사증서와 의상을 전달하는 의식이 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이 모셔져있었으며 말레이시아의 각계 인사들이 진정된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말레이시아 헬프종합대학 설립자인 총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 총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헬프종합대학에서 처음으로 외국수반에게 수여하는 명예박사칭호를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 드리게 된것은 대학의 영광이며 역사적

사면이다. 우리는 나라의 교육사업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헌신하시는 김정은원수님께 명예경제학박사칭호를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자랑이다. 앞으로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조선사이의 교육분야에서의 협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

행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명예경제학박사증서와 의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돐 경축집회가 베닌사회주의당, 기르기즈스탄 <키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도이쉴란드 프랑켄주제사상연구소조직에서 2일에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을 하나의 사들과 공중이 참가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성과 위력을 좌우하는 근본정표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을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조직사상결정체로 만드시였다. 전당이 수행하는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하여 수명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쳐지고 수행의 령도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완벽한 혼연일체를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당원들을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조선로동당을 도덕의리적전일체로 만드시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베닌사회주의당의 영원한 명예위원장이시다.

기르기즈스탄 <키르기즈 엘>인민 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야. 우슈브라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깊이신뢰하여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땅우에는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일떠서고야말것이다.

도이쉴란드 프랑켄주제사상연구소 조 책임자 마르쿠스 피틀러는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하는 강위력한 나라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신대수령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사색과 실천활동으로 당과 국가를 혁명하게 이끄시어 조선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시였다.

베닌, 도이쉴란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메히코에서는 경축집회가, 로므니아에서는 강연회가, 베닌에서는 친선모임, 영화감상회가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메히코조선친선협회, 메히코 네췌우알프요프시청,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주제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김일성-김정일주요인구소조, 꼬프누기자대학, 주제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의 인사들과 공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당창건기념탑>이 상영되였다. 메히코 네췌우알프요프시 문화 및 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건설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리께서는

주제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완수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위업을 이으신 김정일각각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히 해답을 주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실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각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제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가장 로속한 정치가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니신 정치철학은 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주체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베닌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라 무췌베니각하

나는 우간다독립 5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우간다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과 협조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마게도니아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0월 8일발 조선 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

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 여기에는 궁석용 외무부

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올리며 삼베브스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주조 마게도니아공화국 특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

명전권대사가 8일 만수대의

었다.

었다.

었다.

었다.

었다.

#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어머니 당과 인민의 꿈

아기가 꿈을 꾸며 웃고있다. 어머니의 얼굴에 사랑이 넘친다.

고운 꿈을 지켜 어머니가 밤새 우고있는줄 아기는 안지... 아기는 졸음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속에서 자란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소년궁전, 대학교장과 위훈의 전투장마다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꿈을 꽃피웠다.

인생의 절정에서 어제의 아기는 심장으로 췌했다.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는 어머니, 그대는 위대한 우리 당이라고.

물론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주인공은 없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때문이다.

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결연은 인생길을 뒤돌아보시라. 그 작은 가슴에 소중히 간직 하였던 인생의 꿈이 어떻게 꽃피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실천투쟁과 생활투쟁을 통하여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당의 령도따라 나갈 때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굳게 믿고있습시다.》

여기에 유치원생이 되였다고 엄마앞에서 당실당실 춤추던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직은 5살, 그 어린것이 엄마를 잃은것은 그로부터 얼마후

였다. 슬피 울었다. 그 어린것의 텅 빈 가슴을 누가 따듯이 덥혀 줄수 있단 말인가.

그런 어린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린이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것이다.

《준희야! 기특한 일을 했다. 정말 대견하구나. 어서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랑스럽게 우리 준희이에게 빨간별 5개를 준다.》

2012. 10. 10 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수 빨간별을 하나하나 그려주신 편지를 받아안고 허준희어린이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울었다.

어린것의 가슴속에 간직된 고운 꿈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실 뜨거운 정을 담아 한자한자 믿음의 친필을 써주시고도 빨간별까지 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그런 사랑의 품에서 인생의 꿈을 꽃피워왔다.

그러나 반만년민족사에 인민의 꿈이 언제나 현실로 된것은 아니였다.

탈속의 계수나무 옥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살고싶은 소박한 꿈마저 이룰수 없었던 일제 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세월을 분으로 가득찬 불우한 식민지 고아의 꿈은 피에 절은 꿈 아닌 꿈이였다.

피멍으로 얼얼불은 그 가슴가

슴들에 진친한 인생의 꿈이 꽃피기 시작했은 우리 인민이 어머니당의 품에 안긴 때부터였다.

제 땅에서 농사짓고싶어하는 농민들에게는 토지개혁법칙을, 공장, 주인의 되어 더 많은 일을 하고싶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중요산업유화의 혜택을, 봉건의 질곡속에서 시달려가던 녀성들에게는 남녀평등의 당당한 권리를 안겨준 우리 당의 품.

꿈만 꾸던 그것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꿈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자랐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내달려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려! 이 세상 어느곳에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아름답고 승중한 꿈을 안고 사는 나라가 있는가. 전체 인민이 하나의 꿈을 향하여, 이것은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가 될 때 이루어질수 있는 민족의 대진군이다.

그 어느 인민도 가져볼수 없는 하나의 꿈을 향하여 어머니당의 령도밑에 창조와 건설의 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여기에 우리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상과 리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결코 먼 앞날의 공상과 리상이 아니다. 그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대에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날마다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혁신의

시대를 진감하는 발걸음소리

창조와 건설의 진군가 - 《단숨에》

하루를 백날맞잡이로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하는 마시령스키장건설장에 가보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에 화답해나선 이 땅의 대고조전력을 뽐내보라.

그러면 가슴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단숨에》이다.

결사판철의 공격속도, 비전 과학기술의 진군가

전진 과학기술인재화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전진과학기술인재화, 열마나 위대한 사상인니까.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어 전진 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제일이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최우선과 중추를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김일성종합대학의 한달굴의 심정인이라. 온 나라 교육과학기술인재화

현대의적인 체육인재화는 또 얼마나 황홀한가. 체육부문 당조직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체육선봉의 훈련열풍은 날을 따라 높아간다. 국제경기장들에 나가 선군조선체육인의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 세계의 하늘에 광채를 뽐내며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체육부문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대중체육

뜻과 정으로 이어지는 혼연일체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뜻과 정으로 이어지는 혼연일체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뜻과 정으로 이어지는 혼연일체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뜻과 정으로 이어지는 혼연일체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이 땅이 뜨거워지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뜨거워지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이 땅에 끓어쳐흐른다.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누가 보건 말건 한생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참된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가장단결에 이른 문수물들이 장건설장의 밤풍경은 그야말로 백열전을 방불케 하였다.

군건설자들을 도와 지대정리를 걸싸게 하는 교육위원회 정무원들속에는 낮익은 당일군도 있었다.

머칠밤을 꼬박 새운듯 입술이 터지고 눈에는 피로가 물러있었지만 맞을이를 들고 달리는 걸음에는 힘이 넘쳐났다.

《얼마전 남다 자는 깊은 밤 또다시 찾아오시여 동트는 새벽을 여기 건설장에서 맞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님의 태양의 모습을 무려라도 우리 지휘관들모두가 웃을 습니다.》

《끝없는 정열과 헌신으로 한생을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 그대로입니다. 저도 한생을 불길처럼 살렵니다.》

이것이 어찌 문수물들이장건설장에서 만난 인민군대정치일군과 교육위원회 당일군의 심정만이라.

비약의 불바람 세차게 몰아치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에서 인민군대정치일군이 눈물글썩하여 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을 헌신의 모습에 가슴에 깊이 새겨질수록 그이의 로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덜어줄수 없다고.

꼭꼭머리 내닫는 기상과 불같은 헌신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편이여 창조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방식에 매혹될수록 그이의 발걸음에 따라서지 못할 가슴을 치는 우리 일군들이다.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매혹은 위대한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월처럼 태운 맹세의 기적... 이것이 비약하는 내 조국의 현실이다.

활활 타번지는 불길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을 체질화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우리 당일군들의 인생의 최우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땀뿜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고틱을 같이할 때 그런 당일군을 대중은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의 불같은 당일군이라 정을 담아 부를 것이다.

그렇다. 태양은 자기를 강그리 불태워 이 세상 만물에 빛과 열을 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인 위대한 인민의 꿈인 사회주의강성국가,

그 념원, 그 꿈을 꽃피우시려 불같이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당일군모두가 떨쳐나섰다.

사업방식, 일본새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무실을 떠나 군중속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내 조국의 전진속도가 빨라졌다. 남들같은 10년이 걸려도 못할 작업량을 단 한해사이에 해제하고있는 마시령스키장의 기적, 은하과학자거리를 단 7개월동안에 건설한 기적, 불과 10개월동안에 황무지를 약동하는 대지로 전면시진 세포동판의 기적...

이것이 비약하는 내 조국의 현실이다.

활활 타번지는 불길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인생관을 체질화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우리 당일군들의 인생의 최우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땀뿜어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고틱을 같이할 때 그런 당일군을 대중은 경애하는 원수님시대의 불같은 당일군이라 정을 담아 부를 것이다.

그렇다. 태양은 자기를 강그리 불태워 이 세상 만물에 빛과 열을 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인 위대한 인민의 꿈인 사회주의강성국가,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심각히 반성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질문에 대답

지난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최근시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훼손할수 없도록 하고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무엄한 처사와 관련하여 그 경중을 울리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일당은 심사숙고하여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오히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느니, 《용감스럽다.》느니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전해나가고 있다.

저어 우리의 원칙적인 경중을 《초보적인 레외도 지키지 않는 비리성적인 처사.》 《남북간 신뢰를 쌓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또다시 우리대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함부로 찾아대고있다.

지금 이러한 소동에는 박근혜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고있는 괴뢰통일부의 악질보수정체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어용언론매체들이 앞장서고있다.

나랏나 읍직일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는 용납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1차적인 경고이다.

박근혜일당은 우리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깊이있게 새겨들고 심각히 돌이켜보면서 고쳐나갈 마음부러가져야 할것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구차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저지른 죄행을 회피하고 무마해보려고 획책하면서 더욱더 불손하게 처신하고있다.

수습에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께란 말이 있다.

만약 박근혜일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한 상식밖으로 못되고 너적놈개 놀아대지 않았다면 그리고 민족의 친분을 어지럽히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을것이다.

무엇때문에 괴뢰당국의 장관, 차관이라는자들이 혀바닥이 들어가는

대로 허튼소리를 꿰쳐대고 보수언론들은 그들대로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함부로 건드리려는 망령정을 일삼사처럼 저지르고있다.

그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정도이다.

우리는 남조선전역에서 미친듯이 범이치고있는 사상초유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의 막후조종자가 박근혜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제 집안에서도 성차지 않아 미국을 비롯한 해외까지에 나가서까지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고 절고들며 반공화국대결의 앞장서고 돌아다니는 그 간교한 물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하늘끝에 닿게 하였으며 더는 누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입이 열개, 백개라도 우리의 서리한 경고에 대우할 단 한조각의 체면도, 자각도 없다.

이번에 우리의 경중이 울리자 박근혜일당은 북남관계가 《상호존중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고 그것을 인간의 레외와 도덕에 어긋나는 《비리성적인 처사》로 매도하였는

가 하면 우리대러 《용감있는 언행》을 해달라고 첩원피하게 요구해나갔다.

물론대 대북정책을 다룬다는 박근혜의 그 무슨 《안보관계수장》들과 보수언론들이 저지르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일만 벌려낸 늘어놓는 《변화속주》니, 《핵포기》니 하는 발언들이 과연 우리를 존중해서 하는 수작들이였던가.

은갖 범죄를 다 저질러 제 고향, 제 부모처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상에서 제일 어지러운 쓰레기들로 밀려간 인간추물들을 전연일대에 보내우며 하루가 멀다하며 반공화국대결사로를 비롯한 심리묘작행위를 벌리는것이 과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우리의 체제를 비난하며 제멋대는 망발들이 품격을 갖춘 언행인가.

우리는 지금도 북남관계가 전쟁경쟁에 이르렀으면 그 참에한 시각 박근혜가 악취나는 인간쓰레기들을 청외에서 끌어내어 유주정체를 해가며 반공화국대결로 부추기던 그 악질적인 처사를 잊지 않고 있다.

아마 그때에는 하늘에 던진 돌이 제 이마뺨에 떨어질줄 몰랐던자들이 우리의 원칙적인 경중에 마치 핵폭탄이 터진것처럼 와들쩍 놀라이던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고집하고있는것이 지금의 남조선현실이다.

이번에 박근혜일당은 다행스럽게도 말 한마디만은 정중히 하였다. 그것은 북남합의에의 상호비방장을 하지 않고 존중하기로 되어있다고 한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대로 쌍방사이에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자면 상대를 헐뜯는것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연일대에서의 심리전수단행위를 비롯하여 상호비방장상의 근원을 뿌리째 들어내기로 결심하고 그 실천적도범을 보여온것이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과 쌍방군부회담합의서들을 포함하여 북과 남사이에 여러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마다 언제나 비방중상과 같은 적대감조성행동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나가는 조항들이 명기되곤 하였는

바로 그때문이다.

렐어놓고말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박근혜와 그 일당이 이미 북남 쌍방사이에 채택한 합의들을 여러 한 조항들이 있다는것을 들었다. 또는 잊어버린지 오래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박근혜로부터 보수언론매체들까지 한번호로 목에 피대를 세우고 우리를 그토록 짐요하고 악랄하게 헐뜯어낼수 있었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빈대도 코에 있고 그레도 사람이려면 털대를 헐뜯는것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원수지정》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이르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최고의존엄과 체제비난에 악을 쓰며 매달려왔을가를 먼저 돌이켜보아야 한다.

엄숙히 부언하건대 진실로 《국가원수지정》 문제의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행위를 중지하는 실천적행동을 먼저 보여야 할것이다.

사실 우리의 이번 경중은 박근혜

와 그 일당에게 기회를 준것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는 판대하였으며 과거를 불문하고 도량있게 대우하였다.

무턱대고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심각히 반성하고 바로잡아나가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결코 《국가원수》의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모든것을 거머쥔것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격에 맞지 않는 입술들이 없을 때, 경계당풍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이 없을 때, 민심이 저촉되는 뜻된 주장과 견해가 없을 때 비로소 명색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이번 경중에 대한 박근혜일당의 순응을 결코 《굴종》으로 보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바람이 찾아들면 파도가 일지 않는 법이다.

【조선중앙통신】

와 그 일당에게 기회를 준것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는 판대하였으며 과거를 불문하고 도량있게 대우하였다.

무턱대고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심각히 반성하고 바로잡아나가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결코 《국가원수》의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모든것을 거머쥔것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격에 맞지 않는 입술들이 없을 때, 경계당풍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이 없을 때, 민심이 저촉되는 뜻된 주장과 견해가 없을 때 비로소 명색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이번 경중에 대한 박근혜일당의 순응을 결코 《굴종》으로 보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바람이 찾아들면 파도가 일지 않는 법이다.

【조선중앙통신】

와 그 일당에게 기회를 준것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는 판대하였으며 과거를 불문하고 도량있게 대우하였다.

무턱대고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부터 심각히 반성하고 바로잡아나가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결코 《국가원수》의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모든것을 거머쥔것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격에 맞지 않는 입술들이 없을 때, 경계당풍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이 없을 때, 민심이 저촉되는 뜻된 주장과 견해가 없을 때 비로소 명색을 지킬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이번 경중에 대한 박근혜일당의 순응을 결코 《굴종》으로 보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바람이 찾아들면 파도가 일지 않는 법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라

## 도발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위협한 군사적도의 판을 편이 버려놓으면서 우리에 대한 침략적인 핵선제공격기도를 로 풀적으로 드러내었다. 지난 2일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은 제 45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회의》라는것을 열고 북핵선제공격을 위한 《맞춤형억제전략》 문서에 정식 서명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미국방장관은 《전사작전통제권환》 연기문제를 논의하자는 피괴들의 강청도 수락하였다. 이 사실만 놓고도 지금 미국과 피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외호전광들의 이번 모의판은 대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조선반도에 있어 이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피괴들의 공조책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최근 한회의 추이를 보던 남조선반도 정세는 미국과 피괴당국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또다시 엄청난 위기의 최전선에 도달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 호전광들은 조선동해에서 미해방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해나왔다. 피괴들은 이미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을 끌어들이어 긴장국화를 조장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그 누구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선제공격제언인 《킬 체인》과 미사일방위체계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년례안보회의》라는 또 하나의 전쟁도의 판을 벌려놓고 《맞춤형억제전략》에 맞대응을 누른것은 매우 엄청난 사태이다.

이번에 미국과 피괴들이 서명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여기에는 전사과 평시에 관계없이 그 누구의 핵위기사황을 《위협단계》, 《사용림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나누고 특히 《사용림박단계》의 군사적 공격 선제조치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피괴들의 미사일과 재래식무기에 이르기까지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이 조야박하였다. 피괴호전광들은 이것을 작전계획과 맞먹는 《합생계획》이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그것을 숙달, 보충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과 피괴들의 북핵핵심 핵공격수요가 단순한 위협단계로 넘어 실제적인 모험으로 넘어갈 태세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은 북핵핵심전쟁도발책동들을 작성하고 그 실행을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대내외 여론의 규탄이 두려워 그 무슨 《년례적》, 《양어적》이니 하며 저들의 외세한 기도를 가리워왔다. 그런데 호전광들은 그 위선적인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완전히 드러내놓았다.

내외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핵사용정후》를 저들의 북핵핵공격의 전제인

듯이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략적인 《위협》 실을 내걸고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병이다. 미국과 피괴들은 《위협》이니 뉘니 하며 《맞춤형억제전략》에 기초하여 우리를 해치기 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리며 하고있다. 이 위험한 각본의 채택은 조선반도에서의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리성없는 호전광들의 의해 전면적인 핵전쟁발발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사태는 실로 위험천만하다.

미국과 피괴피괴들이 《전사작전통제권환》을 다시금 연기하는 문제를 고려하기로 한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맥스 없이 연결되어있다. 피괴들이 그 무슨 《안보환경의 변화》나, 《우려》니 하면서 《전사작전통제권환》 연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있지만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피괴들이 《전사작전통제권환》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것은 그 누구의 《위협》을 고에 걸고 미국의 오지랴에 바삭 매달리면서 상전과의 군사적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새 전쟁의 도화선에 한사코 불을 달아나게 그 근본목적이 있다. 동족공약의 범죄적공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꼬물한 전 존업도 없이 자주권을 송두리째 외세에 팔아먹는 이런 썩개배진 대내적 작태때문에 북남관계가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은 온 민족의 지향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하지만

미국과 피괴들은 이에 공명연혁 역행하면서 핵전쟁도발에 날이 갈수록 피는 되어 날뛰고있다. 현실은 대화와 평화를 파괴하면서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침략자, 범죄자는 다음아닌 미국과 피괴피괴당이라는것을 똑똑히 입증해주고있다.

우리에게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평화회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는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을 하지 않으며 침략자들의 무분별한 도전을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기어이 성취할 철성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재난을 들씌우기 위해 북핵전쟁의 불동치를 들고 함부로 헤집고있는 이상 그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무모한 핵위협공갈로 우리를 놀래우고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실로 가스통과 부질없는짓이다. 내외호전광들이 제이무리 《맞춤형억제전략》이니 뉘니 하고 허세를 부려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것이 한갓 죽여가는 자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발에는 즉시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단호한 불타먹이 등의리워졌다.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결코 민발로 끝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불량난

남조선피괴들이 지금 도처에서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불장난소동들을 편이 버리며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다. 얼마전 피괴호전광들은 《합동군사연습능력예보》의 간판밑에 경성북도 포항일대와 그 주변해상에서 《2013 호국합동군사연습》이라는 도발적인 전쟁명목에 나섰다. 이 연습에는 10여대의 함선과 30여대의 상륙돌격장갑차, 20여대의 전투기, 3000여명의 해병대 등 피괴군병력과 미해병대 3사단의 1개 대대병력이 참가한다. 포항일대는 공화국북남부의 해안지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피괴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상륙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서 해마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을 감행하고있다.

매월 피괴들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해방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와 일본 《자위대》 무력기동기 팔여기를 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 호전광들은 술뜰릴 사이도 없이 지난 8일부터 또다시 미해방공모함단원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에 진입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피괴들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포항일대에서 침략적인 상륙훈련소동을 감행하는것은 매우 엄청난 사태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의 편이 침략적인 상륙훈련소동을 명백히 북침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뜨리는 실로 분별없는 망정이다.

자나깨나 우리를 무력으로 해칠 기복난 옛모범 침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는자들이 오히려 《북의 도발》이니 뉘니 하고 떠들어대는데가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추구하고 대결과정의 길로 나가는 피괴피괴당의 망정은 실로 어리석은것으로서 그들자신의 자멸을 촉진할뿐이다.

우리는 남조선피괴들이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며 군사적도발을 날로 강화하는 조건에서 절대로 팔짱끼고 앉았을수 없다. 도발의 아성을 무자비한 불타먹이로 흔들어 없애고 이 땅에서 정권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낼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억세어지고있다.

합동훈련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속내에 내외호전광들이 연합해상훈련이니, 상륙작전훈련이니 하는것들을 잇달아 벌려면서 전쟁기운을 고취하는것은 절대로 스치지 않을수 없다. 호전광들의 책동이 우리에게 대한 로폭적인 핵위협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남조선피괴들은 북남관계의 파국을 빚어내는 저들의 범죄적책동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우리를 약탈하게 끌고들면서 군사적 위협과 무력도발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피괴호전광들은 《합동군사연습》을 완료하여 핵전쟁의 포성을 기어이 터뜨리는 실로 분별없는 망정이다.

자나깨나 우리를 무력으로 해칠 기복난 옛모범 침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는자들이 오히려 《북의 도발》이니 뉘니 하고 떠들어대는데가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추구하고 대결과정의 길로 나가는 피괴피괴당의 망정은 실로 어리석은것으로서 그들자신의 자멸을 촉진할뿐이다.

우리는 남조선피괴들이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며 군사적도발을 날로 강화하는 조건에서 절대로 팔짱끼고 앉았을수 없다. 도발의 아성을 무자비한 불타먹이로 흔들어 없애고 이 땅에서 정권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낼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억세어지고있다.

허영민

## 단 평 조소를 자아낸 광대놀음

매월 피괴호전광들이 미국상전들을 끌어들이어 그 무슨 《시가행진》이니, 《최신장비》 공개니 하는 광대놀음을 요란히 벌려놓았다. 피괴신문들은 《10년만에 최대규모》라느니, 《선보인 최첨단 무기》니 하고 구구 추어올렸다. 식민지괴공공이 조작된 날을 두고 《기념》이니, 《행사》니 하고 수선을 날것도 달았이 돈을 노릇이지만 더욱 가관은 《최신무기》라고 하면서 내용은 전쟁장비들의 귀환 내막이다.

피괴들이 광고하는 《축전제식집합대적수단》이라고 하는 미국제공대제식순환기(슬램-ER)는 발동기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 이미 오작동에 《운영중단》 처분을 받아 사살상의 폐기물이다. 호전광들이 《주력》이니, 《최신에

나 하고 떠드는 《F-15K》 전투기도 결함이 계속 드러나 피괴공군에서는 《가동률은 떨어지고 돈만 잡아먹는》 골치거리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북남대결과 동족압살에 환장한 피괴호전광들이 이번 기회에 그 누구를 위협하고 《억제력》이라는것을 과시해보려 하였지만 그것은 괜한 놀음이다. 남조선항간에서는 피괴들의 어처구니없는 광대극을 파헤치자니 야유조소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피괴들이 미국으로부터 《최신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언젠가 하며 소란을 피우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몸부림이며 소문만을 파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다.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피괴피괴의 반민적책동은 최근 벌어지고있는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있다.

올해에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마무리되는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피괴들은 지난 7월부터 새로운 협상을 벌려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4차례의 협상들에서 미국은 피괴들이 남조선항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대로라면 피괴들은 무려 1조원 이상이 피괴당국을 걸머지게 된다고 한다.

어쨌든 피괴들이 미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어 번들고 번들고 하는 사실은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피괴들은 4차례의 협상들에서 결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권인사들은 미국이 심각한 리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미국노들이

## 북침을 노린 매국협상놀음

바라 피괴통치배들이다.

하지만 지금 피괴들은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침사리 받아들일수 없는 단호한 처지에 빠져있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핵실험공약들을 모조리 재버리고있는 처지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민심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어 가족이나 심각한 통치위기는 더욱 수습할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수 있다. 더우기 최근 남조선항간 미제침략군이 피괴당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돌아 그것으로 미군가족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지어 번들고 번들고 하는 사실은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피괴들은 4차례의 협상들에서 결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권인사들은 미국이 심각한 리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미국노들이

##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지난 8월에 있는 3차협상에서 피괴대표가 《협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맹강화》라는 목표가 있다.》느니 뉘니 하고 지껄인 사실 그리고 협상들에서 미국에 계속 밀고오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10월경 협정 체결의 결과물을 내놓아내기로 상전과 합의한 사실은 피괴피괴당이 종양은 미국의 남강도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피괴피괴당이 미군유지비분담금분배와 관련하여 요콜만한 자존심도 없이 얼마나 비굴하게 처신하며 상전에게 발라맞추고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항간 미군이 저들에게 지부된 분담금가운데서 수천억원을 남조선은행에 채두자하여 수천억의 리자를 받아먹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숨겨놓을것을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지난 8월에 있는 3차협상에서 피괴대표가 《협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맹강화》라는 목표가 있다.》느니 뉘니 하고 지껄인 사실 그리고 협상들에서 미국에 계속 밀고오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10월경 협정 체결의 결과물을 내놓아내기로 상전과 합의한 사실은 피괴피괴당이 종양은 미국의 남강도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피괴피괴당이 미군유지비분담금분배와 관련하여 요콜만한 자존심도 없이 얼마나 비굴하게 처신하며 상전에게 발라맞추고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항간 미군이 저들에게 지부된 분담금가운데서 수천억원을 남조선은행에 채두자하여 수천억의 리자를 받아먹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숨겨놓을것을

장윤남

##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이 단죄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이 3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쳐달려서 남조선피괴피괴당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남조선당국자가 지난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조성된 전쟁위기가 마치도 《북의 핵개발》때문인듯이 몰아대면서 《북이 핵무기를 내버려둘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겠다.》고 떠들어대며 대해 비난하였다.

론평은 남조선당국자의 발언은 명백히 북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조장하며 전쟁을 선동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언이라고 단죄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정보원을 동원하여 《대통령》 자리를 강탈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기꾼이 권력의 리에에 앉아 하는것이란 상전인 미국의

명령대로 외세를 끌어들이어 동족인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는 것뿐이라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박근혜가 계속 동족을 적대시하고 국난극적 대결의 길로 간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여 자주통일을 실현할것을 절필히 바라는 온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며 자기 일기조치 마저지 못하고 쫓겨나는 추악한 범죄자로서 역사에 기록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 미군유지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있다

올해에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마무리되는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피괴들은 지난 7월부터 새로운 협상을 벌려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4차례의 협상들에서 미국은 피괴들이 남조선항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대로라면 피괴들은 무려 1조원 이상이 피괴당국을 걸머지게 된다고 한다.

어쨌든 피괴들이 미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어 번들고 번들고 하는 사실은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피괴들은 4차례의 협상들에서 결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권인사들은 미국이 심각한 리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미국노들이

## 미군유지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있다

올해에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마무리되는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피괴들은 지난 7월부터 새로운 협상을 벌려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4차례의 협상들에서 미국은 피괴들이 남조선항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대로라면 피괴들은 무려 1조원 이상이 피괴당국을 걸머지게 된다고 한다.

어쨌든 피괴들이 미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어 번들고 번들고 하는 사실은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피괴들은 4차례의 협상들에서 결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권인사들은 미국이 심각한 리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미국노들이

## 미군유지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있다

올해에 이 협정의 유효기간이 마무리되는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피괴들은 지난 7월부터 새로운 협상을 벌려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4차례의 협상들에서 미국은 피괴들이 남조선항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대로라면 피괴들은 무려 1조원 이상이 피괴당국을 걸머지게 된다고 한다.

어쨌든 피괴들이 미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어 번들고 번들고 하는 사실은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피괴들은 4차례의 협상들에서 결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권인사들은 미국이 심각한 리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미국노들이

장윤남

## 10.4 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애절트지우사회의자당이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애절트지우사회의의 자당은 10.4선언의 리행에 조선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길에 이르고 인정하면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선언을 진정으로 지지한다.

선언에는 조선의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러나 외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책동으로 하여 10.4선언을 부정하고 조선반도에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력사적인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에 즉시 응해나서야 할것이다.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결성까지가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뜨거운 민족애와 애국심에 의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명백한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리정표로 되는 10.4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북과 남, 해외의 전제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리명백대결은 대결과 매국, 도발에 매달리면서 10.4선언을 전면부정하였다.

현 남조선과조선정권 역시 민족의 숙원을 외면하고 조선을 강행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하였으며 진보적통일세력에 대

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정부의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를 세계에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피괴피괴당은 반공화국선전장비나야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우리는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리대성을 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탁월한 선군경도덕에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발전한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에 대하여 개탄하였다.

대결과 불신은 전쟁만을 초래한다오 하면서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덕에 우리 인민이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가장 우월한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신뢰를 지니지 못했단담으로 범한 일이 없을수 없는 과오였다. 하지만 때로는 후회가 그에게 가져다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정보원제거리들에 의해 중죄인취급을 당하였다.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황금정의 인건은 무참히 유린당하였오며 매일 같이 들뜨어지는 온갖

가장 우월한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신뢰를 지니지 못했단담으로 범한 일이 없을수 없는 과오였다. 하지만 때로는 후회가 그에게 가져다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정보원제거리들에 의해 중죄인취급을 당하였다.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황금정의 인건은 무참히 유린당하였오며 매일 같이 들뜨어지는 온갖

## 초불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 표명

5일 남조선의 《정보원정치공작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의 주축에 2000여명의 각계층 운동이 서울역광장에서 피괴호전광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하는 초불투쟁을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의 선거개입규탄을 규탄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초불투쟁이 전개될지 여타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진상규명을 커녕 남북수뇌상봉담화복문제만을 꺼내놓고 여당에

## 피괴피괴당의 횡포한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생동한 고발

피괴피괴당 부지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찰행위를 감행하였다. 1일 피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전지역의 시, 도 주민들의 정당활동단체 등을 조사함에 대한 내용이 세부조사항목으로 지적된 문헌을 내보냈다.

정보원을 비롯한 공안관련기구들을 불법사찰에 내몰아 못해 피괴정부부지부가 동원하여 파쑈제체구조축에 날뛰는 현 남조선피괴피괴당이야말로 추악한 정치장대집단이며 인권유린, 케틀레터의 무리이다.

【조선중앙통신】

이것이 바로 수난의 날갈 그 가 찾는 결론이었고 그를 조국으로 떠민 마음의 의지였다.

그때부터 그는 언제한번 공화국에 대한 생각,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잊어본적이 없었다. 그는 끝내 공화국의 품에 안기고야말았다.

황금정은 불우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가깝고 화려한 가족들과 고향사람들이 그리워 온

##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재미동포가 주장

재미동포 오인동이 5일 서울통신에서 진행한 10.4선언발표 6돐 기념모임에 참가하여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는 강연을 하였다.

그는 한 민족이 하나로 합쳐살아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할뿐 아니라 민족사의 절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반도의 분열은 외세에

의한것이기때 통일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언명하였다.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통일을 이룩하면 우리 민족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남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저들의 리익을 중심으로 대하는

미국에만 이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외세만을 위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비난하였다.

통일은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손잡고나갈 때 이룩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생동한 고발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한 생동한 고발

신속체적으로 하여 눈시력은 더욱 멀어졌다. 그는 정보원에서 《하나니》으로 이송되었오며 그곳에서 지긋지긋하고 모멸에 찬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탈북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하나니》은 좁은 쇠살장으로 된 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감시자가 곳곳에 설치되어있으며 무장경호를 주위로 감시하는 커다란 감옥이었다. 아침일찍 회회에 끌려가 정신을 혼돈시켜놓고 온종일 반동사상과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주입시키는 그 그들은 그야말로 진지러나는것이였다. 자기 조국을 배반한자들의 운

##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지난 8월에 있는 3차협상에서 피괴대표가 《협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맹강화》라는 목표가 있다.》느니 뉘니 하고 지껄인 사실 그리고 협상들에서 미국에 계속 밀고오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10월경 협정 체결의 결과물을 내놓아내기로 상전과 합의한 사실은 피괴피괴당이 종양은 미국의 남강도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피괴피괴당이 미군유지비분담금분배와 관련하여 요콜만한 자존심도 없이 얼마나 비굴하게 처신하며 상전에게 발라맞추고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항간 미군이 저들에게 지부된 분담금가운데서 수천억원을 남조선은행에 채두자하여 수천억의 리자를 받아먹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숨겨놓을것을

##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추악한 매국반역적책동을 가리우며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만극을 치러지려 한다. 지난 8월에 있는 3차협상에서 피괴대표가 《협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맹강화》라는 목표가 있다.》느니 뉘니 하고 지껄인 사실 그리고 협상들에서 미국에 계속 밀고오는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고 10월경 협정 체결의 결과물을 내놓아내기로 상전과 합의한 사실은 피괴피괴당이 종양은 미국의 남강도적인 요구를 고수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피괴피괴당이 미군유지비분담금분배와 관련하여 요콜만한 자존심도 없이 얼마나 비굴하게 처신하며 상전에게 발라맞추고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항간 미군이 저들에게 지부된 분담금가운데서 수천억원을 남조선은행에 채두자하여 수천억의 리자를 받아먹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숨겨놓을것을

본사기자 김향미

# 위대한 선군대양을 안아올리신 조선의 어머니

## 업적 토론 회 진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업적토론회가 9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로앤씨에는 영국신공산당, 선군정치연구소, 주체사상연구소, 조선파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의 인사들과 중언이 참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소 위원장 더모트 하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은 김정일동지를 훌륭히 안아키우시어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신것이다.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혁명가,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참된 아들로 키우신 김정숙동지의 공적은 역사에

조각명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께서는 위대한 혁명가로서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참다운 혁명가의 귀감, 뺨쳐 산내장군,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이름떨치시었다. 배방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새민주조선을 건설하고 혁명무력

들을 한몸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막아나시었다. 녀사께서 김정숙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 이 사수하여야 할 조선의 심장, 조선의 운명이시였기때문이다. 녀사께서는 길지 않은 생의 전기간 주체의 안방과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배방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김정숙동지의 호위전사로 간주하시며 그녀의 신변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시었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편대성그루빠 인터넷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 《에지나아 프레시》, 우크라이나 크림주체사상연구소협회 인터넷홈페이지는 9월 22일 《조선의 위대한 녀성》, 《조선적혁명사수》 등의 제목 밑에 김정숙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 승리의 할로파라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

## 월남외교전략연구소 소장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황 아영 부인 월남외교전략연구소 소장이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고 많은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기간 여섯을 돌아보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다. 조선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모든 성과들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조선인민은 승리의 할로파라 전진하고있다. 조선에서 목격할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하다. 조선인민이 부강조국건설과 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그는 국제친선친람관을 참관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친람관이 전시되어있는 선물들마다에는 김정숙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도심이 어려웠다. 이처럼 진귀한 선물들은 처음 본다. 선물들 가운데는 절세위인들께 월남의 령도자

들과 인민들이 올린 선물들도 있다. 참관을 통하여 세계인민들이 김정숙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만민의 장성을 여겨주고있는 최의의 위인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호지명주석과 김정숙동지께서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개와 동아시아지역문제에서 월남과 조선사이의 전략적협조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 로씨야 신문이 글 게재

로씨야신문 《프레시》 제 34호가 《조선은 언제든 통일될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조선전쟁은 파초에 의해 강요된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할바없이 가장 가혹한 전쟁이었다고 하면서 미제가 나팔관과 세군무까지 사용하고 평화적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데 대하여 련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마치 북과 남사이에서 벌어졌듯이 사태를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리승만파괴정부를 사육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준비하였다.

지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쟁개시와 함께 미국과 남조선에서 항복과 《자진포로》를 권고하는 수많은 배라들이 인쇄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여전히 미국의 괴뢰, 하수인으로 복무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나팔관으로 모든것을 불태우고 독가스로 사람들을 질식사했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폐허로 만든 미제에게 복무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은 경제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다. 왜냐하면 조선이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자립적인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미제는 단일한 조선민족을 분열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장성을 여겨주고있다. 조선인민은 많은 아침의 나라에 누가 불행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언젠나 잊지 않고있다. 그리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갈때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 습근평주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2일부터 5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이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회담과 담화를

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방문과정에 중국과 해당 나라들 사이에 협조문건들이 조인되었다.

#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립장 표명

만다대통령 레인 세인이 3일 라빈주를 돌아오면서 한 발언에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범죄를 종속 및 종교적분쟁으로 격화시키려는 시도를 철대로 허용할수 없겠음을 시사하였다.

여 그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법질서를 수립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범죄를 종속 및 종교적분쟁으로 격화시키려는 시도를 철대로 허용할수 없겠음을 시사하였다.

# 반마약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

베네수엘라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소가 2일 국경경비대 교위위헌회의에서 반마약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최근 카라카스를 떠나 프랑스의 파리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1.3의 코카인이 발견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마약가》까지 붙이지 못해 예를 쓰고있는 미국이 이런 사건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미국가마약통제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에서 산성에서 산림조성 사업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몇해 동안 해마다 450만무이상의 산림을 새로

# 로씨야 국가회의 의장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을것이라고 언명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는 최근 유럽리사회의 회에서 연설하면서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웬을 미국

에 넘겨주지 않을 립장을 재언명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미국의 인권

# 간섭을 허용 립장 강조

이란의무장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3일 자기 나라의 핵계획과 관련한 협상에 이스라엘이 간섭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유엔총회 회의에서 이란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전쟁광신자들이 핵협상에

서 합의가 이룩되는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압력을 조성하려고 애쓰고있지만 이란정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은 평화적목적의 핵기술에 대한 자기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결과 현재 성의 산림 조성률은 80%로 늘어났다고 한다.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파일중산에 힘을 냈고있다. 자치구의 파일나무재배면적



월남에서 소금 생산

# 국제체육소식

## 2014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 대회 본선경기에 참가할 16개 팀 확정

2014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에 참가할 16개 팀이 전부 확정되었다. 본선경기참가자격을 받은 국

토한 성적이 가장 높은 5개 2위팀들이 본선경기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2014년대회 주최국인 타이림은 예선경기에 참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 2013년 유럽남자 축구선수권 대회 진행

런던올림픽우승팀인 로씨야팀이 이탈리아를 3:1로 누르고 우승하였다. 지난해 대

회 우승팀인 스페리아팀은 3:4위전에서 벨라리아를 3:0으로 이겨 3위를 하였다.

## 제40차 베를린파라선경기대회 진행

제40차 베를린파라선경기대회이 9월 29일 도이칠란드에서 진행되었다. 베를린파라선경기대회에서는 케냐의 윌슨 키프상선수가 2시간 03분 23초의 성적으로 우승하고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2011년 제38차

배를린파라선경기대회에서 역시 케냐의 선수인 페드리코 마카우가 세운 종전 세계 기록인 2시간 03분 38초를 15초나 앞당긴것이다. 한편 녀자경기에서는 케냐의 플로렌스 키플라가트선

# 감비아 영련방에서 탈퇴

감비아대통령 야야 에이. 제이. 제이, 자메오가 2일 자기 나라가 영련방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나라 정부는 《영련방성원

국지위를 포기하며 신식민지국의 성원국으로, 신식민주의팽창을 대항하는 그 어떤 기구의 성원국으로 절대로 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미국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 고조

미국인들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있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최

근 이 나라의 한 방송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7%가 정부와 국회에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 이탈리아에서 배전복사고

이탈리아의 람페두사섬부근 수역에서 3일 이주인들을 태우고가던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약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 파도르의 수도 끼도

#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지구온난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해결은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이것은 최근시기 지구온난화가 촉진되면서 사람들의 생명이 심히 위협당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이미 탈러진바와 같이 급속히 확대되는 인류의 경제활동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구조는 북극지방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바다 밑에서 메탄이 대기중으로 대량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촉진되면서 전세계에 60조US\$의 손실을 가져다 줄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서비례에는 이산화탄소의 20배이상이나 되는 메탄 수화물이 묻혀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메탄이 대기중으로 방출되고있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는 기술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최근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현재 대규모집적회로 1개의 처리속도는 해마다 빨라지고있지만 전자에 의한 신호전송속도가 한계에 도달한것으로 하여 컴퓨터의 처리속도는 더이상 빨라지지 않고있다. 연구집단은 여러 대규모집적회로(LSI)사이의 신호를 전자대신 빛으로 전송하는 배선기판을 개발하였는데 그 크기는 약 5mm×5mm이다. 대규모집적회로내부에서의

정보처리와 종전과 같이 전자들에 의해 진행되며 처리된 신호는 레이저빔에 의해 열의 대규모집적회로로 전송된다. 새 기술에 의해 앞으로 2020년에는 일반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2002년에 세계 최고기록을 세운 슈퍼컴퓨터만큼 빨라지게 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 미사일 요격시험 감행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3일 또 한차례의 미사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다. 이날 태평양의 하와이미시시피일대에서 폭발한 중거리미사일을 목표로 해상배회형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34차례의 해상배회형요격미사일시험발사를 감행하였고 있다고 한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있다. 1일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8월에 동맹성원국들에서 25살미만 청년실업자수가 549만 9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인 기온 상승을 가져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동안의 세계평균기온은 1.4, 4.7℃로 그전의 10년동안의 평균기온보다 0.21℃ 올랐다고 이것은 19세기 중엽이후 가장 높은것이라고 한다. 기온상승의 영향을 받아 지구의 북극과 남극, 기타 고산지대의 얼음과 눈이 녹아내려 바다수위는 해마다 높아지고있다. 50여개 나라 과학자들은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지난 수십년간 북극해의 얼음층이 급속히 감소되었는데 지난해 9월에 측정된 얼음은 1980년의 45%에 불과했다.

#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는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지구온난화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콘물, 열과, 가뭄 등 이상기후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있으며 그로 인한 자연재해와 손실 또한 심각하다. 이밖에도 삼림의 파괴, 지어는 사파의 맛이 떨어지는것 등 지구온난화와 관련된다고 한다.

#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온난화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는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지구온난화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콘물, 열과, 가뭄 등 이상기후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있으며 그로 인한 자연재해와 손실 또한 심각하다. 이밖에도 삼림의 파괴, 지어는 사파의 맛이 떨어지는것 등 지구온난화와 관련된다고 한다.